

단양군 도민체전 엠블럼·마스코트 확정

이상복 기자 | 승인 2015년 12월 15일 20시 26분 | 지면계재일 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 지면 18면 | 지면보기



슬로건 '단양을 새롭게 충북을 힘차게' 충북도민 화합·발전·미래비전 컨셉



▲충북도민체전 엠블러와 마스코트. 단양군 제공



TODAY기획 시리즈

1. [지방균형발전] 민선8기 지방정부 새 시대 열렸다
2. [교육현장] 지자체로 넘어가는 대학 육성 권한...위기
3. [안전점검] 노인 보행 중 교통사고 취약...보호구역 내

같이가기 대국민힐링프로젝트



뉴스이슈

- 전문대 대상 첫 자치단체 매칭사업 대전만 제외
- 터줏대감 홍성열 증평군수 "시원합니다"
- "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소상공인 올리는 사기 피싱
- "바짝 메말랐다"...충남에 또 날라온 '가뭄 경고장'

뉴스한컷

지방선거 투표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양군은 내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55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상징물(슬로건·엠블럼·마스코트·포스터·시그니처)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종 확정된 상징물은 충북도민의 화합과 발전을 통한 행복한 미래 비전을 콘셉트로 이번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양을 새롭게, 충북을 힘차게’ 슬로건은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의 장밋빛 미래를 염원하는 단양군민의 뜻이 반영했다. 엠블럼은 충북도의 ‘ㅊ’을 모티브로 성화를 들고 뛰어가는 역동적인 충북도민의 모습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했으며, 다양한 컬러는 충북 체육인의 기상과 열정, 자긍심, 도전정신 등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아래의 도담삼봉은 단양에서 열리는 55회 충북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스코트는 단양군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온달장군과 평강공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친근하고 귀엽게 표현했다.

또 단양팔경 중 하나인 도담삼봉을 배경으로 함께 성화를 들고 힘차게 달려가는 이미지로 충북도민의 자긍심과 화합 발전을 의미해 55회 충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단양군의 밝고 희망찬 미래비전을 형상화하고 있다.

박상용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상징물 선정을 시작으로 내년 6월 열리는 충북도민체육대회가 158만 도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화합하고 행복한 자리가 되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기자의 다른기사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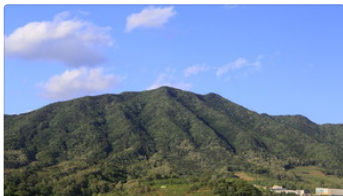
충청투데이

정기구독 신청하기

주요기사



대전 학하동 아파트 건설 인허가 통과... 하반기 분양 400세대 이어진



'닭을 풀어 지네를 잡았다'... 일출명소 충주 계명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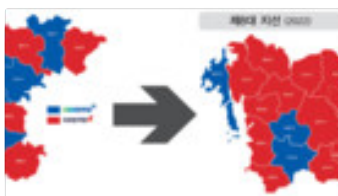
충북 '최대 표발' 청주 표심이 승리 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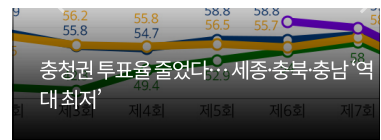
대전 '온통대전' 이젠 농협·농축협에서도 만나요



이장우 대선시장 당선... 정비·건설업 변화 기대감



4년 전과 180도 달라진 충청... 새빨강게 물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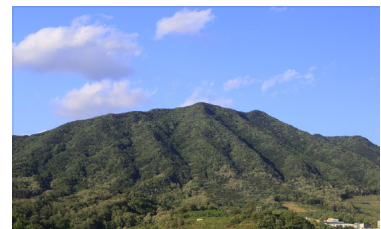
최신뉴스

- "우리, 내년 철쭉꽃 필 때 다시 만나요"
- 대전 학하동 아파트 건설 인허가 통과... 하반기 분양
- '월급빼고 다 오른다'... 충청권 물가 상승률 6% 넘어
- '닭을 풀어 지네를 잡았다'... 일출명소 충주 계명산
- 평택제천고속도로 남안성~북진천나들목 구간 전면

포토뉴스



문화	스포츠
----	-----



'닭을 풀어 지네를 잡았다'... 일출명소 충주 계명산은 충청북



목관악기로 다양한 색 표현하는 감성 팔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예산군행복

기사덧
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충청투데이 소개 사회공헌구독신청광고안내제휴안내독자위원회편집위원회고충처리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모바일웹

본사 우)35273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30번길 67 (갈마동 400) 충청투데이 | 대표전화: 042)380-7000 | 팩스: 042)380-7019
충북본사 우)28468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운천동 1373) 충청투데이 | 대표전화: 043)263-0009 | 팩스: 043)263-2297
회사명: (주)충청투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314-81-46317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전 가 00002 | 등록일자: 2001-12-08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박신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신용

Copyright © 2022 충청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ctoday@cctoday.co.kr

POWER

..

